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9 Vol. 207
September 2017

기획공연 조르디사발 「The Celtic Viol」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Arts Center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9 Vol. 207
2017 / September

Special Performance

04 | 기획공연
조르디사발 The Celtic Viol

Special Exhibition & Art Class

06 | 기획전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9~10월의 작가 김용규展」

08 | 아트클래스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9월호 / 통권 207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Contents

Art & Performance

10 | 울산시립무용단
울울창창蔚蔚蒼蒼–십리대숲에 부는 바람

12 |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 시리즈4
클래식할 FUN뻔 3

16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8 | 울산시립합창단
나는 테너다

Art & Story

19 | 이탈리아 통신
에스프레소 커피

22 | 예술을 말하다 Ⅰ
죠아키노 로시니6

25 | 예술을 말하다 Ⅱ
라오콘 군상

28 | 예술을 말하다Ⅲ
웹툰을 품은 뮤지컬

31 | 김용진의 Piano Forte
대중음악과 클래식

34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캣츠

Information

39 | 9월 공연·전시가이드

44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46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THE CELTIC
VIOL
조르디사발
Jordi Savall
2017. 9. 9.(토) 오후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고음악의 거장, 조르디 사발이 울산을 찾습니다. 올 가을, 거장의 연주로 만나는 인간과 자연, 그 깊은 아름다움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조르디사발 Jordi Savall / Viol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조르디 사발은 지난 40년 이상 잊혀졌던 보물같은 음악을 재발견하는데 헌신했다. 40여 년의 연구를 통해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로써 수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연주하였으며 몽세라 피게라스와 함께 에스페리옹21, 라 카펠라 레알 데 카탈루냐, 르 콩세르 드 나시옹 등을 창단하여 아름다운 감성이 가득한 음악적 세상을 발견하고 전 세계 수백만 음악 애호가들에게 이를 선보여왔다. 사발은 알랜 코르토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에 크게 공헌했고 세자르 영화상 최우수 영화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음악을 통해 이해를 이루고 분쟁가운데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며, 이 업적을 인정받아 EU가 선임하는 문화간 외교관으로 선임된 바 있다. 또한, 몽세라 피게라스와 함께 유네스코 '굿 윌 앰버서더' 프로그램에서 평화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프랑스 레종 도뇌르 훈장 기사장, 음악의 노벨상으로 평가 받는 레오니 소닝 음악상 등 영예로운 상들을 수상했다.

앤드루 로렌스-킹 Andrew Sawrence-King / Harp & Psaltery

바로크 오페라,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원전 하프 비르투오소, 통주저음 마법사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하피스트 앤드루 로렌스-킹은 현재 대표적인 원전 음악연주자이자 레코딩 아티스트이다. 그는 라 스칼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카잘스홀, 도쿄, 베를린, 비엔나, 모스크바 필하모닉, 카네기홀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단체에서 오페라 및 실내악을 지휘하였고 이번 시즌에는 현재 남아있는 스페인바로크 오페라 중 가장 오래된 'Celos aun del aire matan'을 모스크바에서 지휘할 예정이다.

프랭크 맥과이어 Frank McGuire / Bodhrán

퍼커셔니스트 프랭크 맥과이어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통음악 연주자였으며 맥과이어 본인도 파이프 밴드에서 음악을 시작해 점차 전통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여러 밴드에서 연주한 맥과이어는 핫 토디페임 출신의 케빈 앨리슨과 밴드 'GAELUM'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러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한 맥과이어는 러시아 내의 많은 음악 축제와 라디오, TV 등에 출연해 연주활동을 펼치기도 했다.2010년 조르디 사발, 앤드루 로렌스-킹과 함께 'Celtic Viol No.2' 음반을 발매하여 세계의 페스티벌과 공연무대에 오르고 있다.

P R O G R A M

켈틱 비올 The Celtic Viol

인간과 자연 MAN & NATURE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민요 속의 음악적 초상과 풍경
MUSICAL PORTRAITS &LANDSCAPES
In the English, Irish, Scottish, and American traditions

칼레도니아 세트 The Caledonia Set

케포의 아치볼드 맥도널드 아일랜드 민요
Archibald MacDonald of Keppoch Traditional Irish
음악의 성직자 아일랜드 민요 *The Musical Priest* Traditional Irish
스카치 메리 아일랜드 민요 *Scotch Mary* Traditional Irish 외
(트레블 비올 / 아일랜드 하프 / 살터리와 바우런)(Treble viol / Irish Harp & Psaltery / Bodran)

캐롤란의 하프 The Carolan's Harp

안 그란델 버넷(덩컨 버넷의 음악책, 스코틀랜드 ca.1610)
Ane Groundel Duncan Burnett(Duncan Burnett's Music Book, Scotland ca. 1610) 외 (아일랜드 하프) (Irish Harp)

에딘버그의 꽃 Flowers of Edinburg

터틀의 릴 아일랜드 민요 Tuttle's Reel Traditional Irish
칼의 춤 아일랜드 민요 *The Sword Dance* Traditional Irish 외
(트레블 비올 / 아일랜드 하프 / 바우런) (Treble viol / Irish Harp &Bodhran)

INTERMISSION

도니골 세트 The Donegal Set

교화된 방랑자 존 플레이포드(1623-1686)
The Rover Reformed John Playford (1623-1686)
레이디 메리 헤이의 스코틀랜드의 조치 스코틀랜드 민요
Lady Mary Hay's Scots Measure Traditional Scottish 외
(트레블 비올 / 아일랜드 하프 / 살터리 / 바우런)(Treble viol / Irish Harp & Psaltery / Bodran)

모이라경 세트 The Lord Moira Set

아버젤디성의 느린 춤곡 댄 R. 맥도널드(1911-1976)
Abergeldie Castle Strathspey Dan R. MacDonald (1911-1976)
섭정자의 고함 - 모이라경 스코틀랜드 민요
Regents Rant - Lord Moira Traditional Scottish 외(베이스 비올 / 백파이프 튜닝) (Bass viol / the Bag-pipes Tuning)

아일랜드 풍경 Irish Landscapes

오언 로의 애통 털록 오 캐롤란(오닐)
The Lamentation of Owen Roe Turlough O'Carolan (O'Neill)
아일랜드의 언덕 The Hills of Ireland 외 (트레블 비올 / 아일랜드 하프 / 살터리 / 바우런)(Treble viol / Irish Harp & Psaltery / Bodran)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연은 카탈루냐 지방정부 문화부, 라몬 유이 인스티튜트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With the support of the Departament de Cultura of the Generalitat de Catalunya andthe Institut Ramon Llull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9·10월의 작가

Accompany #2, 76.2×101.6cm, Digital Silver Print

KIM YOUNG-GYU 김용규展

2017.9.1.(금) ~ 10.30.(월),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

Accompany #3, 76.2×101.6cm, Digital Silver Print

Accompany #7, 50.5×76.2cm, Digital Silver Print

Accompany #14, 42×59.5cm, Digital Silver Print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의 네 번째 주자인 「9~10월의 작가 김용규展」이 9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개최된다.

김용규 작가는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울산 · 부산 지역에서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아름다운 동행(Accompany)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에 매료되어, 보고 느꼈던 감동을 카메라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행길에서 만났던 동행자들을 작가의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작품의 주요 소재는 남녀 커플의 사랑, 함께 길을 걸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노부부의 이야기 등 사람냄새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이며 흑백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은 더욱 정적이다.

작가는 "촬영을 위해 길을 나서면 늘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보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진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울산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작가 프로필

김 용 규 Kim, Yong-Gyu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사진학과 졸업(사진학 석사)

〈개인전〉

2017 The Line (렌토갤러리, 울산)
2015 긴 세월, 짧은 시간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부산)
2013 숨고르기 (울산과학관, 울산)
나의 모든 하루는 설레임이다 (갤러리 아리오소, 울산)
Time-장생포, 그 아득한 시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1 Slow Life-느리게 사는 행복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울산)
2010 New Discovery-새로운 발견 (영상아트갤러리, 울산)
2008 Cenveno(샌밴오) (영상아트갤러리, 울산)

〈단체전〉

2017 '유형학을 그리다'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5 휴먼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 부산)
2014 한.일교류 사진전 (후쿠오카 예술회관, 후쿠오카)
2013 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 참여
2012 아트페어전 Korea Photo Festival (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서울)
2011 경남현대사진국제페스티벌 후원전/마산 315아트센터 등 총 50회 이상

〈저서〉

2013 '나의 모든 하루는 설레임이다' 포토에세이집 출판

렌토 갤러리 대표, 빛그림포토클럽 고문,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흑백사진연구회, 경상일보 사진동우회, 다큐피안 회원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속의 문화예술교육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여름특강을 마무리하며…

문화예술회관으로 바캉스!

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는 올 여름 뜨거웠던 8월의 일주일간, 문예회관 바캉스를 꿈꾸며 '여름특강'이 진행되었다. 흔히 알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인 대중음악, 연극, 예술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한 흐름과 실태를 명사들을 직접 만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다. 먼저, 강헌(음악평론가)과 함께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음악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삶이 곧 연극의 일부의 안내를 주신 안치운(연극평론가)와 사랑과 우정, 증오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을 살펴보는 허나영(미술평론가)로 유익하고 풍부한 시각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예술가와 함께 어린이, 가족과 함께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느낀 점을 함께 공유를 한 후 생각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은숙(예술가)와 가족들은 함께 '나'라는 존재를 복면에 표현하였고, 박성란(예술가)과는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버려진 고물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색감으로 일상을 느끼게 해준 윤혜정(예술가)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스페셜 3과목을 모두 수강한 정태옥님은 '너무 멋진 강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체험과목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동건은 '엄마와의 많이 얘기를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트 클래스는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별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아트 클래스」 하반기 교육과목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7. 9. ~ 12월 • **교육장소** : 상설교육장 이론·실기·창작실 • **교육문의** : 052-226-8254

교육과정

이 론	클래식레시피	9.~11월 (금)	10:00	30명	조희창(음악평론가)
	20·21세기 미술사	9.~11월 (목)	14:00	30명	임근준(미술평론가)
	영화와 클래식	9월 (수)	14:00	30명	진회숙(음악평론가)
	춤의 인문학	10월 (월)	14:00	30명	박성혜(무용평론가)
	맛으로 읽는 한국문학	11월 (목)	19:00	30명	소래섭(울산대교수)
스페셜	교향악단의 공연읽기	9월 12일, 19일 (화)	19:00	30명	박 진(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의 공연읽기	9월 18일, 25일 (월)	19:00	30명	정규현(시립합창단) 김성아(시립합창단)
실 기	예술 사진 입문	9.~10월 (수)	10:00	15명	옥진명(사진작가)
	서예 문인화	9.~12월 (화)	19:00	15명	이재영(서예가)
	서예 한 문	9.~12월 (수)	19:00	15명	이종민(서예가)
	서예 서간체	9.~12월 (목)	19:00	15명	조동래(서예가)
	서예 한 글	9.~12월 (금)	10:00	15명	김숙례(서예가)
	한국화 그리기	9.~12월 (수)	10:00	15명	조현남(한국화가)
	민 화 그리기	9.~12월 (목)	10:00	15명	김명지(민화작가)
	유 화 그리기	9.~12월 (화)	10:00	10명	이상민(서양화가)
	현장 스케치	9.~12월 (화)	14:00	10명	권영태(서양화가)
	아크릴화 그리기	9.~12월 (목)	10:00	10명	최명영(서양화가)
	수채화 그리기	9.~12월 (목)	19:00	10명	최정임(서양화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tatus of Ulsan Metropolitan City

울산시립무용단

국악관현악극

울창

심리 대숲에 부는 바람

2017. 9. 1.(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장료** | V석 1만원,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입장등급** | 5세 이상 입장가능 •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사라진 달을 찾아 나선 화랑 울울태!
학이 된 슬픈 여인 창창화!

빼어난 기예와 해학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울뫼산이 광대패의 전통연희 한마당

이경섭 작곡! 사성구 대본!
두 거장과 울산시립무용단이 완성하는 대규모 국악관현악극으로 올 해 놓쳐서는 안 될 대작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화려하게 장식하다!

예술총감독 **이경섭**

대본 **사성구**

안무 **박정은**

음악감독 **박상욱**

작/편곡 **김창환**

작/편곡 **김희정**

특별출연 **서진실**

특별출연 **전태원**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공연 〈울울창창蔚蔚蒼蒼–십리대숲에 부는 바람〉(대본 사성구, 작곡 이경섭)이 오는 9월 1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울산시립무용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국악관현악극 〈울울창창蔚蔚蒼蒼–십리대숲에 부는 바람〉은 그야말로 울울창창한 신화적 상상력과 웅장한 관현악, 그리고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용이 한데 어우러지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경섭 작곡가가 작곡은 물론 총체적인 공연의 조율을 맡았으며, 절묘한 상상력과 기발한 입담으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가 사성구 중앙대 겸임교수가 대본을 썼다. 서울 대학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연출가 권혁우 연출이 가세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판소리극 〈출세가〉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명성을 날린 소리꾼 전태원이 남주인공 '울울태' 역을 맡았으며, 국립창극단 창극 〈청〉의 심청 역으로 호평을 받은 월드뮤직밴드 억스[AUX]의 보컬 서진실이 여주인공 '창창화' 역을 맡았다.

울산의 오랜 신화와 전설을 모티프로 우리나라 해안가 전역에 분포된 '백일홍 설화'를 흥미롭게 접목시킨 이 작품은 신라시대 울산을 그 배경으로 한다. 신라의 달(月)이 어느 날 사라지고 그 달을 찾아 나선 화랑 울울태와 학(鶴)이 된 슬픈 여인 창창화가 만나 벌이는 기기묘묘하고 가슴 떨리게 하는 사랑이야기는 간절곶에 치는 파도처럼 감동적인 물결로 관객들을 휘몰아 갈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극중극 형식으로 풀어 나가는 울뫼산이 광대패는 빼어난 기예를 선보임과 동시에 해학과 웃음으로 전통연희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더불어 국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는 극의 요소요소에 스며들어 극의 웅장한 감동을 배가시킨다.

사성구 작가는 "전통은 케케묵은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면서 "울산의 켜켜이 쌓인 보물창고를 열어 씨줄과 날줄의 울울창창한 비단을 짜는 일이 너무도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울울창창蔚蔚蒼蒼–십리대숲에 부는 바람〉의 기발한 극적전개 속에는 울산 대왕암에 깃든 용(龍)의 전설, 지금은 사라졌으나 옛날 학(鶴)의 고향이었던 태화강 십리대숲, 태화의 길을 연 자장율사의 설화,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화랑도 이야기, 가지산의 눈부신 사계, 신불산 은빛 억새 평원, 몽돌해변과 세상 가장 먼저 해 뜨는 간절곳 등 울산의 풍광과 역사 문화가 스토리텔링에 자연스럽게 녹아 어우러져,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울산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울울창창한 자부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ESTRO SERIES 4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94th Subscription Concert
Maestro Series4
Fri 8th September, 2017. 8:00PM
Conductor : Gerard Schwarz
Cello : Young-chang Cho

마에스트로 시리즈 4

2017. 9. 8.(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제라드 슈바르츠 첼로 조영창

MAESTRO SERIES 4

세계적인 지휘계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은 시애틀 심포니의 지휘자를 거쳐
세계적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올스타 –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제라드 슈바르츠가 이끌어 갑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5번을 비롯하여 첼리스트 조영창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일 하이든의 첼로협주곡까지
다시 오지 않을 환상적인 조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휘자 제라드 슈바르츠 (Conductor Gerard Schwarz)
- 줄리어드 음악대학 졸업
- 뉴욕 필하모닉 트렘펫 수석단원으로 활동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로스앤젤레스 챔버오케스트라, 뉴욕 실내악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등 지휘
- 뉴욕 모차르트 페스티벌,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등 음악감독 역임
- 도쿄필하모닉 예술자문위원 역임
- 현) 시애틀 심포니 명예지휘자, All-Star Orchestra 음악감독, 동부음악페스티벌(Eastern Music Festival) 음악감독

첼로 조영창 (Cellist YoungChang-Cho)
- 피바디 음악대학, 커티스 음악학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 내셔널 영 콘서트 아티스트 입상
- 로스틀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 ARD국제콩쿠르 첼로부문, 나움버그 국제 첼로 콩쿠르,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등 주요 국제 음악 콩쿠르 석권
- 파리 로스트로포비치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악대학 교수 역임
-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일본 NHK, 도쿄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 연세대학교 교수

Program

▶**림스키-코르사코프 / 눈아가씨 모음곡**
Rimsky – Korsakov / The Snow Maiden Suite

▶**하이든 / 첼로 협주곡 다장조 제1번 〈첼로 조영창〉**
Haydn /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INTERMISSION (휴 식)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64**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64

INFORMATION

티켓_ R석/3만원 S석/2만원 A석/1만원

할인_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공연문의_ Tel. 275-9623~8 http://ucac.ul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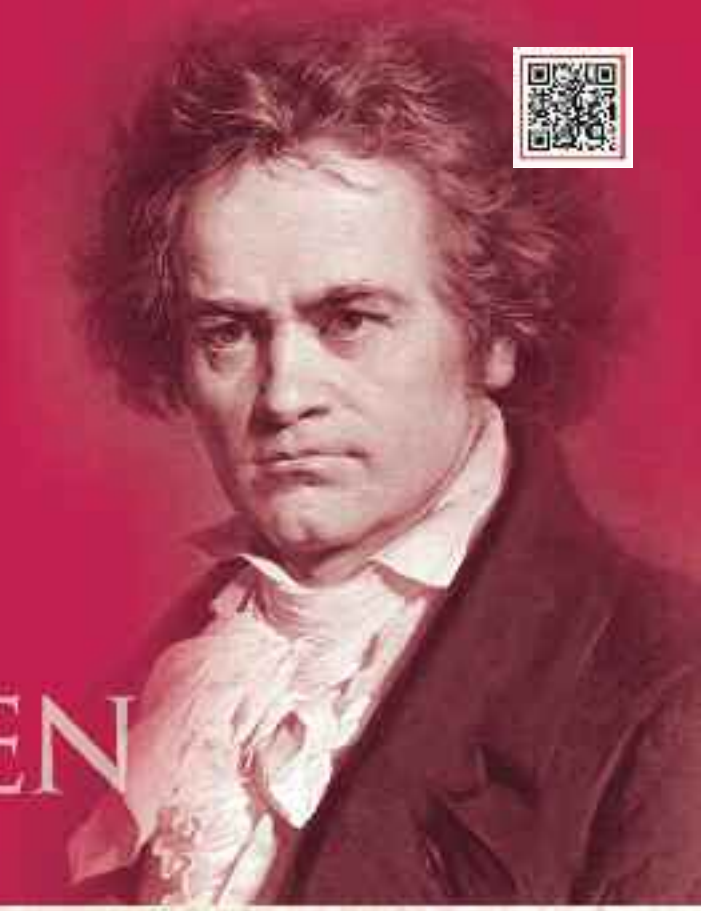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7 DISCOVERY SERIES 3 8PM. 21th SEPTEMBER
Conductor. HEETAE-SEO, Baritone. DONGSUB-KIM
Pianist. SUNGWON-YANG

LUDWIG VAN BEETHOVEN



울산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 시리즈

클래식 할 FUN 3번

베토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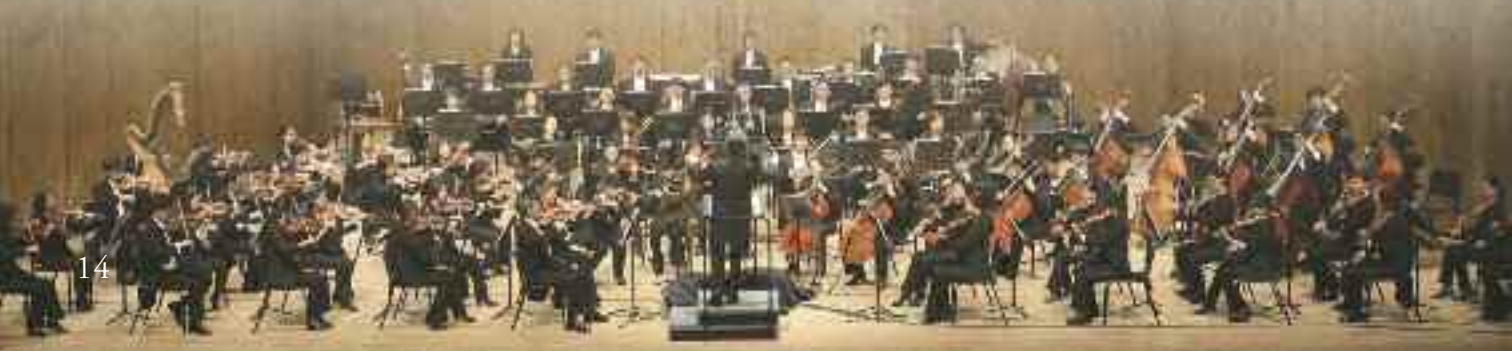
2017.9.21.(목)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예매 (80%, 단체 (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할인
공연문의 http://ucac.ulsan.go.kr 275-9623~6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Program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제1악장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1st. mov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37 제1악장 (피아노 양성원)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 37

그대를 사랑해 (바리톤 김동섭) Ich liebe dich

이 어두운 무덤 속에 (바리톤 김동섭) In questa tomba oscura

〈INTERMISSION 휴식〉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제2악장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2nd. mov

오페라〈피델리오〉 중 돈 피짜로의 아리아 "하! 늦진 않았어?" (바리톤 김동섭)
Ha! welch ein Augenblick! from Opera 〈Fidelio〉 Don Pizarro Aria

현악사중주 제16번 바장조 작품135 제4악장 String Quartet No.16 in F Major Op.135 4th. mov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제4악장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4th. mov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습니다.

바리톤 김동섭
- 서울 음대 성악과 동대학원 졸업
-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뮌헨음대 성악과 오페라과 와 독일 가곡과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2002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2003뮌헨 ARD콩쿠르 동양인 최초 1위, 돔그라프 파스벤더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국제콩쿨 입상
- 빈 국립오페라단에서 수여하는 에버하르트 메달 수상
- 독일 가곡콩클 1위, 중앙 콩클 1위, MBC대학가곡제 대상 등 국내 콩쿨 입상
- 인스부르크, 린쯔, 할레, 하펜, 쥬리히,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등 여러 오페라극장에서 활동
- 동양인 최초로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보탄역(주연)
- 2012년 11월 꿈의 극장 테아트로 콜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바그너 링 출연
- 현)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양성원
-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독일 슈투르가르트국립음대 Dipolm(전문연주자과정) 최우수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최우수졸업
- 프랑스 리옹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 입상
- 미국, 유럽 독주회 등 각종 음악회 200여회 출연
- 2011년부터 장일범의 해설이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냉정과 열정사이' 5개 도시 초청 투어 공연
- 10월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인 하얼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서울 롯데 콘서트홀, 구미에서 협연 예정, 2018년 3월 독일 베를린 챔버오케스트라와 예술의전당에서 협연 예정
- 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장신대학교에서 후학 양성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기획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Ulsan Youth Orchestra Festival

2017년

9월 2일(토)~6일(수)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초대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275-9623

주최_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주관_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기획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Ulsan Youth Orchestra Festival

울산 지역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예술적 감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
무대에서 펼쳐지는 5일간의 대축제!
울산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을 연주합니다.

9월 2일(토)

울산초등학교 가온누리오케스트라 (지휘 박유현) | 중남초등학교 중남학생오케스트라 (지휘 조배건)
동평초등학교 동평드림오케스트라 (지휘 최승길) | 온양초등학교 온양학생국악오케스트라 (지휘 김미경)
강동초등학교 강동아라학생오케스트라 (지휘 최승길) | 삼남중학교 삼남유스오케스트라 (지휘 조배건)
옥현중학교 옥현관현악단 (지휘 한수현)

9월 3일(일)

울산교사오케스트라 (지휘 오창록) | 옥서초등학교 옥서학생오케스트라 (지휘 김영화)
복산초등학교 복산드림오케스트라 (지휘 최원태) | 서부초등학교 서부관악부 (지휘 성진호)
현대청운중학교 청운오케스트라 (지휘 최승길)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송유진)

9월 4일(월)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울산여상창포오케스트라 (지휘 신화용) |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관악합주 (지휘 여수아)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지휘 박성기) | 울산현대공업고등학교 현대공고윈드오케스트라 (지휘 정종보)

9월 5일(화)

약수초등학교 작은학교큰울림약수오케스트라 (지휘 금길동) | 명정초등학교 명정오케스트라 (지휘 최길석)
매산초등학교 매력발산오케스트라 (지휘 최승길) | 천곡중학교 천곡한울학생오케스트라 (지휘 오찬미)
이화중학교 이화드림학생오케스트라 (지휘 정국진) | 현대중학교 현대중학교오케스트라 (지휘 이성민)

9월 6일(수)

삼신초등학교 삼신윈드오케스트라 (지휘 윤덕노) | 반천초등학교 반천관악부 (지휘 조승래)
삼호초등학교 삼호꿈나무오케스트라 (지휘 김명찬) | 태화중학교 태화오케스트라 (지휘 이상규)
청량중학교 청량학생오케스트라 (지휘 조배근) | 서생중학교 무지개뽕나무코끼리 (지휘 이경준)

나는 테너다

2017. 9. 26.(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료** | 전석 7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등) •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지휘 **한성용**

피아노 **김혜은**

피아노 강혜진

Program

Non ti scordar di me / E.D.Curtis – Ten.김용근
Recondita Armonia (오페라 '라 토스카' 중) / G. Puccini – Ten.김성철
Take me as I am(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 Ten.김병도, Sop. 김정상
Granada / A.Lara – Ten.정필윤
Passione / N.Valente – Ten.배수완
Grande amore Il volo – Ten.김정권, 박현민 Bar.최대우
Core n' grato / S.Cardillo – Ten.김정률
Dio. che nell'alma infonde (오페라 '돈 카를로' 중) / G.Verdi – Ten.박승희 Bar.김진용
Tu ca nun chiagne / E.D.Curtis – Ten.정규현

합 창

The Battle of Jericho / arr.Moses Hogan
Hold on to the rock / Pepper Choplin
Tango in 5 / Sandra Milliken With bandoneon
Swingin' with the Saints / Negro Spiritual

에스프레소 커피

커피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기호 식품으로 특히 한국에서의 커피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홍수 속에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흔한 풍경인데 반해 이탈리아의 바(Bar)에서는 서서 작은 커피 잔의 커피를 홀짝 마시고 나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메뉴가 화려하고 다양한 한국과 달리 메뉴도 아주 단순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에스프레소 커피와 카푸치노가 가장 유명하다.

에스프레소 커피(Caffè Espresso)란 미세하게 분쇄한 커피 가루를 고온과 고압의 물을 가해 추출해내는 고농축 커피의 일종이다. 황갈색의 커피 크림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진한 커피의 향은 악마의 유혹이라 할 만큼 강렬하다. 이탈리아어 “espresso“의 의미 역시 '고속의', '빠른'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몇 년 전만해도 한국에서는 드립 커피 방식이 대부분이였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에스프레소 커피 방식을 이용해 커피를 만든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역사는 그리 길지않은데 토리노 태생의 안젤로 모리온도(Angelo Moriondo)가 1884년에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처음 개발하였다. 그 후 1901년에 루이지 베제라(Luigi Bezzera)에 의해 보완이 되었으며 1905년에는 파보니(Pavoni)라는 회사를 통해 매일 한 대의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생산하기에 이른다.

안젤로 모리온도(Angelo Moriondo)

Espresso Machine

Capsule

Moka

현재는 전 세계 커피숍의 커피 머신은 대부분 이탈리아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알레티 모카 포트도 이탈리아 브랜드이다.

요즘은 간편하고 편리한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모카 포트를 고집하며 사용하는 가정도 많다. 상표명을 따서 흔히 모카(Moka)라고 부르는 에스프레소 포트는 이탈리아에서는 흔히 카페띠에라(caffettiera)라고 부른다. 1933년 이탈리아의 알폰소 비알레티(Alfonso Bialetti)와 루이지 데 폰티(Luigi De Ponti)가 개발하였으며 최초의 모카포트인 모카 익스프레스는 출시 후 80년간 유지해 온 클래식한 팔각면체의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 역대 10대 디자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통적으로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관리가 수월한 스테인레스나 다른 재질로 된 제품들도 출시된다.

모카포트를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아래쪽 포트에 물을 채우고 바스켓에 커피가루를 담은 후 가스레인지에 올려 가열한다. 물이 끓어서 압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증기가 위쪽 포트로 이동하며 커피가 추출된다.

이탈리아의 가정은 매일 아침 모카포트를 사용해 커피를 추출하며 아침 식사로 크로와상과 함께 카푸치노 혹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신다. 또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바(Bar)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바(Bar) 앞을 지나갈 때면 갓 구운 크로와상의 달콤한 버터향과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향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누구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도록 만든다.

바(Bar)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꽃피는 곳이며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다. 이웃들과의 소통의 공간이며 커피 한잔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과 이탈리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바(Bar)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가리켜 바리스타(Barista)라고 하며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텐더라는 뜻이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바리스타를 대대로 기술을 전수하는 장인이자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과 자동화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좋은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려면 오랜 훈련이 필요한데 먼저 에스프레소에 적합한 커피 원두를 셀렉해야 하며 그 원두를 분쇄하여 굵기를 조절해야 한다. 그 후 분쇄된 커피가루를 바스켓에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고 수동 기계의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압력과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솜씨 좋은 바리스타는 습도와 날씨의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커피를 조절한다. 또 뽑아낸 커피에 얹는 우유거품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커피를 꾸미는 라떼 아트(Latte Art)도 바리스타의 기술에 포함된다.

Caffe al Bar

Cappuccino

커피의 종류는 간단한데 추출 시간에 따라 첨가물의 양에 따라 세분화 된다.

카페 리스트레또(Caffè ristretto)는 커피를 짧게 추출한 농축된 커피를 뜻하며 커피의 본래의 맛을 맛볼 수 있다. 에스프레소 커피 잔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채워진다. 진한 커피라는 이유로 카페인이 더 많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짧아 정반대로 더 적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다.

카페 꼬르또(Caffè corto) 또는 카페 에스프레소(Caffè normale)는 커피 잔의 반 정도 채워지며 에스프레소 커피의 기본(Standard)을 말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고 사랑받는 커피의 종류이다.

카페 룽고(Caffè lungo) 는 커피를 길게 추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양의 커피에 더 많은 물을 투과시켜 더 풍부하고 은은한 커피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에스프레소 커피 잔의 4분의 3이 채워지며 추출시간이 길어 카페인의 함유량은 더 많다.

카페 마끼아또(Caffè macchiato) 는 에스프레소 커피에 소량의 우유를 넣은 커피이다. 마끼아또(macchiato)는 이태리어로 "얼룩"이란 뜻으로 커피에 우유가 들어 있는 모습이 얼룩이 묻은 거와 같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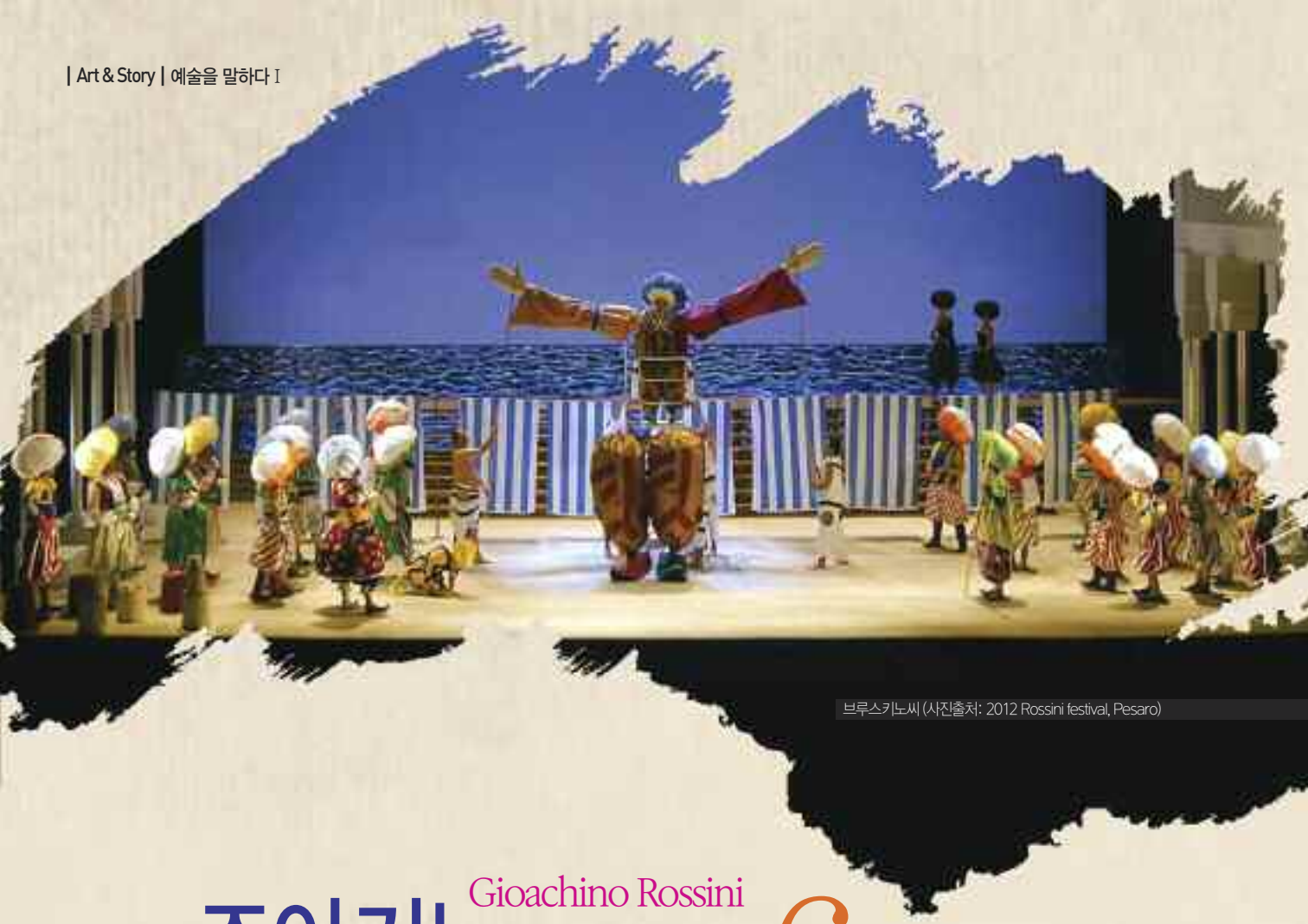
카페 꼬레또(Caffè corretto)는 에스프레소 커피에 도수가 높은 알콜을 첨가한 커피로 주로 포도 증류주인 그라빠(Grappa)를 첨가한다. 그라빠 중에서도 에스프레소 커피와 조화로운 맛을 내는 품종의 포도를 사용한 그라빠를 주로 사용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종류의 알콜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브랜디(brandy), 미스트라(mistrà), 삼부까(sambuca), 럼 (rum) 등이 있다. 카페 꼬레또의 특징은 도수가 높은 알콜을 첨가하여 커피의 향과 맛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

카페인으로 커피를 즐기지 못하는 이를 위한 카페 데카페이나토(Caffè decaffeinato)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이고 여름에는 얼음과 시럽이 들어간 카페 샤케라토(Caffè Shakerato)도 많이 마신다.

카푸치노(Cappuccino)는 카페 에스프레소에 거품을 낸 따뜻한 우유를 첨가한 후 카카오 가루를 뿌려 마무리한다. 보통 크로와상(Croissant)과 함께 아침 식사(Colazione) 때 주로 마신다.

깊은 전통의 뿌리 위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탈리아 문화는 르네상스 이후 오늘날까지 서구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변화에 느리고 기본을 지키며 전통을 사랑하는 정신은 문화유산에서도 커피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글_김진홍



브루스키노씨 (사진출처: 2012 Rossini festival, Pesaro)

Gioachino Rossini
죠아키노 로시니 6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1813년 로시니는 자신이 작곡한 최초의 오페라 세리아 '탄크레디', 단막 희극오페라 '브루스키노 씨'를 초연한 후 이 해의 세 번째 오페라로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극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L'italiana in Algeri)을 베네치아 산 베네데토 극장에서 초연했다. 이 작품은 로시니의 초기 단막 희극오페라에서 오페라 부파의 최고봉 '세비야의 이발사'(1816)를 탄생시키는 징검다리를 한 오페라로 로시니가 본격적인 오페라 부파 작곡가로 등극하는데 주요한 발판이 되는 작품이다.

대본과 작품 배경

이 오페라의 대본가 안젤로 아넬리는 원래 작곡가 루이지 모스카에게 이 대본을 제공해서 이전에 오페라로 작곡되었으나 로시니가 같은 대본을 재탕한 것이다. 그 당시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어쨌건 오늘날은 로시니의 오페라만 유명하다. 17세기 알제리의 무스타파 궁정(혹은 로시니 동시대의 알제리)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모차르트 시대부터 대유행했던 이국풍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다.

당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던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미지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당시 유럽인들의 시각은 호기심과 동경, 경외심과 경멸감이 섞인 복잡다단함 그 자체였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서유럽에서 이들 이국 문물에 대해 관심은 19세기까지도 꾸준히 지속이 되어 '터키 풍'의 여러 예술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터키 술탄 궁정을 배경으로 한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도 그런 유행에서 나온 오페라이다.

유럽인들의 우월함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본 '오리엔트'란 미개하고 폭압적이며 여자는 남자에 종속된 사회라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에서도 이슬람인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서유럽인들의 미덕과 관용을 칭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유럽 본토 사람들은 언제나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같은 지역에 대해 이국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알제리는 16세기부터 오랜 기간의 터키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고 이 곳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의 탄생은 당시 유럽 분위기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언제나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와 비견된다. 로시니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실제로 서로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로시니를 '이탈리아의 모차르트'라고 부르는 것은 로시니와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초스피드의 작곡가이며 그들의 음악이 경쾌하고 활기에 넘친 우아함으로 가득하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2막의 오페라 부파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바로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오페라이다. 로시니는 이 오페라를 불과 20여일 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음악이 날림은 아니며 한마디로 말해서 주옥과 같다. 산뜻하고 순박한 멜로디에 당시의 일반적인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보다도 긴 아리아이지만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 아리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로시니 오페라의 특성이다.

초연과 작품 특징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1813년 5월 22일에 베니스의 테아트로 산 베네데토(Teatro San Benedetto)에서 처음 공연되었다. 테아트로 산 베네데토극장은 18세기와 19세기 초까지 베네치아 오페라의 산실이었다. 19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라 페니체 극장에게 오페라 공연장으로서 주 기능을 넘겨주게 된다. 이 오페라 초연을 기리는 뜻에서 한때는 테아트로 로시니(Teatro Rossini)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유럽의 이국풍에 대한 관심은 로시니의 이 작품을 대성공으로 이끄는데 일조했다.

우선 제목부터 이국적인 알제리 궁정의 하렘을 연상케 하여

탄크레디 (사진출처: foto tratta dal sito gbopera.it)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로시니 부파의 특징은 선율보다 리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광풍이 몰아치듯 빠른 속도로 읊조리듯 노래하는 '파를란도' 기법은 작품에서 희극적인 효과를 더 높여주었다.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과 역동성이 넘친다. 합창단은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염탐하여 관객들에게 보고하면서 무스타파를 비웃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유머 감각은 관객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로시니의 전형적인 여주인공 탄생

여주인공 이사벨라는 상황 판단력도 탁월하고 언제나 영민하면서 낙관적이고 담대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사벨라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이후 등장하는 로시니의 전형적인 당찬 여주인공이 탄생한 것이다. 로시니 오페라 부파의 대표적인 여주인공들은 저음역 가수가 많은데 그 시작도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에 등장하는 이사벨라부터이다. 이후 '세비야의 이발사' 속의 로지나, '신데렐라' 속의 안젤리나가 모두 메조소프라노가 주역이다.

초연 이후

로시니는 베네치아 초연 이후 비센차, 나폴리, 밀라노의 공연을 위해 스코어를 여러 번 손질을 하였다. 바르셀로나, 파리, 리스본, 런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둬 로시니의 명성을 높였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19세기 후반부터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르디와 푸치니, 바그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이들 작곡가에게로 세상의 관심이 옮겨져 갔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리바이벌되기 시작했으며 21세기에는 더 자주 공연되었다. 오늘날에는 로시니 오페라 중 '세비야의 이발사' 다음으로 자주 공연되는 로시니의 인기작이 되었다.

탄크레디 (사진출처: https://www.lesarts.com/)

줄거리

제1막: 바람기 많은 알제리의 고관 무스타파는 정숙한 아내 엘비라에게 싫증이 나자 그녀를 자신의 이탈리아인 노예 린도로와 짝지어 궁정에서 보내려고 계획한다. 무스타파는 이탈리아 여인이 아름답고 상냥하고 애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부하에게 이탈리아 여인을 구해오라고 한다. 린도로는 해적들에게 잡혀 팔려온 다른 이탈리아 남자들과 함께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연인 이사벨라를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다.

한편 린도르를 찾아 배를 타고 알제리 근처를 항해하던 이사벨라, 배에서 만나 그녀를 짝사랑하여 귀찮게 따라다니는 타데오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어 알제리의 궁전으로 잡혀간다. 끌려온 이사벨라를 보자 무스타파는 한눈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한다. 타데오는 이사벨라의 숙부라고 속인다. 이사벨라는 이 궁정에서 엘비라와 결혼하여 이탈리아로 떠나려는 린도로를 만난다. 이사벨라는 무스타파에게 린도로가 자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린도르를 시종으로 달라고 하여 두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제2막: 궁성 사람들은 안하무인이었던 무스타파가 이탈리아 여인에게 완전 빠져서 노예처럼 구는 것을 보고는 비웃으며 수군거린다. 이사벨라는 린도로와 몰래 만나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함께 도망가기로 계획을 세운다. 무스타파는 타데오에게 높은 지위를 주며 이사벨라와의 결혼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사벨라를 좋아하는 타데오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다. 타데오와 린도로, 이사벨라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침묵하는 것'이 규칙인 '파파타치'라는 놀이를 고안해 무스타파에게 소개한다.

이사벨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판단력을 상실한 무스타파가 파파타치의 규칙에 고지식하게 따르는 사이에 이사벨라는 알제리에 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을 선동해 다 함께 배를 타고 이곳을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이 부분에서 부르는 이사벨리의 아리아 '조국을 생각합시다'는 당시 통일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다. 무스타파는 결국 자기가 이사벨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사벨라에게 잘 가라고 말하고 엘비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한다.

주요 아리아

- 1막 〈Languir per una bella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며〉 (린도로: 테너)
- 1막 〈Pira di dividerci da voi, signore 떠나기 전에〉 (린도로, 이사벨라, 무스타파 등의 7중창)
- 2막 〈Pappataci! Che mai sento? 파파타치! 무슨 뜻이야?〉 (무스타파: 베이스, 린도로, 타데오: 베이스 3중창)
- 2막 〈Pensa alla patria 조국을 생각합시다〉 (이사벨라: 메조 소프라노 혹은 콘트라 알토)

글_ 송종건

탄크레디 (사진출처: Opéra de Lausanne)

라오콘 군상

〈도판 1〉 티에폴로, 〈트로이 목마의 행진(The Procession of the Trojan Horse in Troy)〉, 1773, 캔버스에 유채, 39x67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옛날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령 우주의 기원이나 거대한 자연 현상,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화를 고안했습니다. 즉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납득하려 한 것이지요. 신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전지전능하며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설명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에 도전하는 영웅적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실패로 끝납니다. 때로는 신이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신들 사이의 갈등이 인간사를 좌지우지할 때도 있습니다.

신의 섭리는 사제에게 전해지는 신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때로는 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는 대개 비극이나 큰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 때문에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벌어진 일의 원인을 신에게 돌렸다고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은 신들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도판 2〉 아게산드로스, 폴리도로스, 아테노도로스, 〈라오콘 군상(Laocoön and his Two Sons)〉, 대리석, 높이 2.13m, 바티칸 미술관.

전쟁의 발단은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님프 테티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초청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잔치판에 던진 불화의 사과 때문에 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9년간의 전쟁 중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서양 미술의 주제가 되었고, 이 중에는 신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트로이는 멸망합니다.

파리스의 누이 카산드라는 아폴론 신에게 예지 능력을 선사받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카산드라가 아무리 트로이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하지만 트로이의 사제인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의 운명은 더욱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양 진영 모두 지쳐갔습니다. 이 때 그리스의 꾀 많은 오딧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생각해 냈습니다. 나무로 거대한 말을 만들고, 그 안에 병사들을 숨겨 들여보내는 것이지요. 그리스 병사들은 목마만 남겨두고 후퇴하는 척 했습니다. 이에 속은 트로이 군대는 전리품으로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려 했습니다(도판1).

이 때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은 그리스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를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는 목마의 복부에 창을 던지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오히려 이런 신에 도전하는 행동이 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스 편에 있던 아폴론이 거대한 뱀 퓌톤 두 마리를 보내 자신의 사제였던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라오콘이 목마를 들이지 않아 천벌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고요.

트로이 전쟁과 로마의 건국을 노래한 고대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베르길리우스는 "라오콘이 별에 들릴 정도로 무섭게 울부짖었다"고 했는데, 〈라오콘 군상〉은 이를 표현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도스 섬의 조각가 아게산드로스(Agesandros)와 폴리도

로스(Polydoros), 아테노도로스(Athenodoros)가 기원전 50년경 제작했다고 추측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기는 이성과 절제, 이상적인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라오콘 군상〉이 제작된 헬레니즘 시대는 격렬한 감정과 운동감, 극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라오콘〉 조각상에서도 거대한 독뱀 두 마리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휘감고 있습니다(도판2). 이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입을 크게 벌려 이들을 물어댑니다. 라오콘의 오른쪽에 있는 아들은 공포로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애써 뱀을 떼어내려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왼쪽에 있는 아들은 죽음을 맞이한 듯 몸이 뒤로 넘어갑니다. 고통에 겨워 몸을 이리저리 비트는 라오콘은 이미 사제가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산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꿈틀대는 근육과 튀어나온 핏줄의 표현, 그 어느 것도 정적이지 않은 장면은 수 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라오콘〉 조각은 이후 바로크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격렬한 감정 표현과 움직임, 극적인 사건의 재현은 베르니니 등의 조각가들에게서 다시 나타납니다. 화가들 중에는 〈라오콘〉을 회화로 다시 재해석한 작품을 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루벤스의 제자였던 수트만(Pieter Claesz Soutman)이 그린 〈뱀에게 물린 라오콘과 아들들〉은 마치 조각상의 장면을 회화로 옮긴 듯합니다(도판3). 어둡고 음산한 하늘과 거친 풍경이 이들의 운명을 예고하고, 뱀의 공격을 피하려 이리저리 애쓰지만 소용없습니다. 조각상에서처럼 왼쪽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라오콘은 하늘을 바라보며 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오랫동안 땅에 파묻혀 있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터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를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한 덩어리의 대리석으로 만든 라오콘 상으로 오해하여, 고대 예술의 기적에 경탄했다고 합니다.

글_ 황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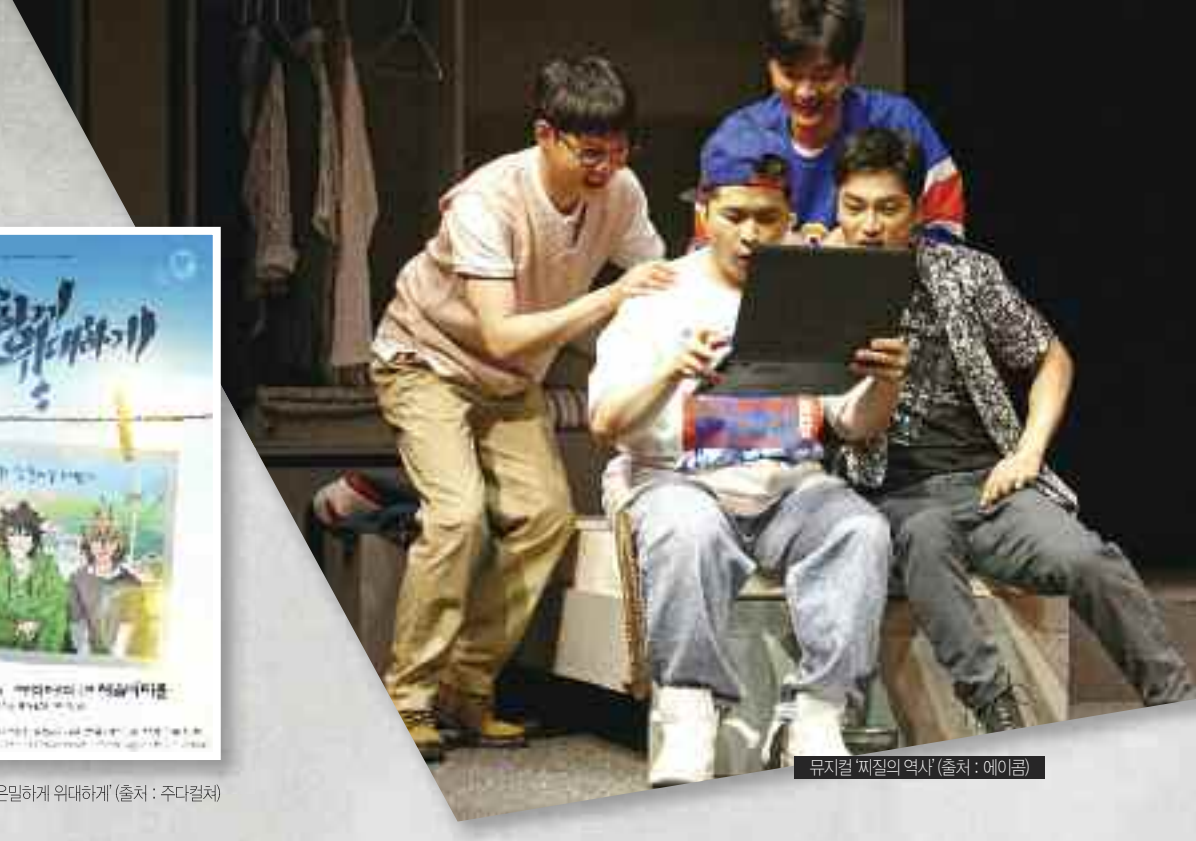
〈도판 3〉 수트만, 〈뱀에게 물린 라오콘과 아들들(Laocoon et ses fils mordus par les serpents)〉, 캔버스에 유채, 185x237cm, 보르도 미술관.

웹툰을 품은 뮤지컬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만큼이나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재가 무대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한 장르에서 사랑받은 이야기는 타 장르에서도 활용하니까요. 공연계에서 가장 많이, 꾸준히 도움을 받는 분야는 문학일 테고, 영상매체의 발달과 함께 영화와 드라마도 단골이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시대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는 대중문화가 무대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 소비층의 구미를 확인했고, 잘 알려져 친숙하다는 옵션까지 장착했으니 절반의 흥행은 접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웹툰입니다. 이미 드라마와 영화로까지 제작되고 있는 웹툰은 뮤지컬과 연극으로도 적극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쪽에서는 강도하 작가의 〈위대한 캣츠비〉가 확실하게 물꼬를 텄다면 2015년 초연된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_저승편〉이 정점을 찍었고, 2016년 〈은밀하게 위대하게〉, 올해는 김풍, 심윤수 작가의 〈찌질의 역사〉가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통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웹툰이 무대에서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출처 : 주다컬쳐)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출처 : 주다컬쳐)



뮤지컬 '찌질의 역사'(출처 : 에이콤)

원작을 살리되 무대적인 상상력으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웹툰계의 대작으로 불리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지난 2013년 김수현 주연의 영화, 2016년에는 뮤지컬로도 제작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10대 소년들을 데려다 혁명괴물로 키워내는 북한 5446부대의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공화국 최고 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간첩 리해진은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맡은 임무는 달동네 바보(동구), 가수지망생, 고등학생이죠. 특별한 지령도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남한의 일상에 익숙해져 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임무가 내려집니다.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1년 만에 다시 공연되고 있습니다. 웹툰처럼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도 없고, 김수현을 대적할 스타배우도 없지만, 뮤지컬은 초연에 이어 재연 무대까지 그야말로 '은밀하고 위대하게'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웹툰부터 영화, 뮤지컬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거대한 장치를 사용했지만, 결국 가족과 평범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장르의 특수성에 맞춰 같은 장면이 어떻게 변주되느냐에 따라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만의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에서 빛을 발했던 원류환의 바보 연기는 배우의 연기력으로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동구의 바보스러운 행동에 최정예 엘리트 요원 원류환의 독백이 근사한 육성으로 더해지면서 더 실감나죠. 또 무대는 제약이 많지만 대놓고 속아주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가 동분서주 배달을 다니는 모습은 똑같은 초록색 운동복에 가발을 쓴 여러 명의 배우가 뛰어다니는 것으로 표현되고, 한 배우가 전혀 다른 캐릭터로, 그러니까 할머니에서 아리따운 여인으로 시간차를 두고 분장을 달리하며 등장하기도 합니다. 웹툰의 무한한 자유로움을 무대적인 상상력으로 얼마나 재치 있게 극복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극 포인트인 셈입니다.

스토리도 음악도 '공감 백 배' 뮤지컬 〈찌질의 역사〉

보통 뮤지컬로 만들어진 책이나 영화는 외국 작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고 주요 독자층도 20~30대가 많다 보니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무대로 옮겼을 때의 효과도 확실한 편인데요. 뮤지컬 〈찌질의 역사〉가 좋은 사례입니다. 김풍 작가가 글을 쓰고 만화가 심윤수가 그림을 그린 웹툰 〈찌질의 역사〉는 2013년 11월 시즌 1을 시작으로 시즌 3까지 서툰 청춘들의 연애 흑역사를 적나라하게 담아내 독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죠. 탄탄한 원작 덕분인지 지난 6월 초연된 뮤지컬 〈찌질의 역사〉 역시

뮤지컬 '찌질의 역사' (출처 : 에이콤)

뮤지컬 '신과 함께_저승편' (출처 : 서울예술단)

석 달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3년을 살아가는 네 남자 민기, 광재, 기혁, 준석은 2002년을 돌아보며 추억에 젖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녀, 흠잡을 데 없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부끄럽고 서툰 연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현재 여자친구 앞에서 첫사랑 얘기를 자꾸 꺼내는가 하면, 울며 매달리고 무릎까지 꿇고. 네 남자가 누구나 한두 개쯤 가지고 있는 찌질한 모습을 그러모아 그야말로 찌질의 완성체를 보여주는 통에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마저 민망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객석의 반응도 남다른데요. 멋진 넘버 뒤에 박수갈채 정도로 끝나는 여느 뮤지컬과 달리 〈찌질의 역사〉에서는 주인공들의 찌질한 모습에 웃음과 야유, 한숨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는 재미도 남다릅니다.

이 작품의 흥행 비결은 스토리도 노래도 무한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웹툰의 핵심만 잘 추려내 청춘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찌질의 역사'를 화면 속 그림이 아니라 무대 위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구현해 냈는데요. 찌질한 모습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 소름이 돋을 만큼 실감이 나 때로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입니다. 특히 델리스파이스의 '챠우챠우',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등 90년대 인기 가요들이 스토리에 맞게 넘버로 사용돼 지금 한창 연애 중인 20대 관객들의 공감은 물론이고 30~40대 관객들의 추억까지 자극합니다. 객석에서 조금은 화끈거리지만 실컷 웃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공연장을 나올 때는 후련하면서도 조금은 아련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역시 우리 모두의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

2015년 초연된 서울예술단의 〈신과 함께_저승편〉은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대극장 무대에 올린 창작가무극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7개의 지옥문을 거쳐 최종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저승에서 이승의 삶을 평가받는 것이죠. 망자들에게는 각각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이승에서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온 소시민 김자홍과 그의 변호를 맡은 초짜 국선변호사 진기한을 통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한국적인 이야기를 무대에 담아내는 서울예술단의 기조와도 잘 어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후 세계, 그 만화적인 상상력을 무대 위에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윤회를 상징하는 환형 무대와 LED 스크린을 수놓은 화려한 영상, 7개 지옥문을 표현하는 다양한 무대 세트, 한국적인 멋이 돋보이는 서울예술단의 안무, 무술 연기가 더해져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은 최근 재연까지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원작의 독특한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은 그대로 살리되 공연예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신화적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데요. 덕분에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여느 공연과 달리 대극장을 가득 채우는 밀도 높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웹툰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분장과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의 가장 큰 인기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소설이나 영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뮤지컬은 원작과의 비교를 거부하는 편이지만, 웹툰을 원작으로 한 대다수 공연들은 오히려 만화 속의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비슷하게 살아 움직이는가가 주요 관극 포인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의 캐릭터들은 그야말로 바로 화면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생생합니다.

글_ 윤하정

대중음악과 클래식

변화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 새인가 지나가 버렸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시원해진 바람은 뜨거웠던 여름을 먼 기억 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 하다. 바캉스의 즐거웠던 기억도 살며시 사라져 간다.

삶 가운데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흥을 돋울 때, 즐거울 때도 음악은 빠지지 않는다. 실연을 당해도 슬픈 음악으로 감정을 다스린다. 떠나간 사람을 보내면서 남은 사람을 위로할 때도 음악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크, 고전부터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것이 바로 음악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시도로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음악이라고 평가 받았던 비발디의 음악은 옛날 옛적 바로크시대의 음악이 되어버렸고, 양의 창자나 고래 심줄을 꼬아서 만든 거트현은 쇠줄로, 더욱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전자 바이올린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음식에 넣는 MSG처럼 더욱 자극적인 것이 필요한 것일까? 음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소통이다. 음악은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중들과의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음악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문화에서 클래식을 대표하는 곳이 유럽이라면, 모던을 대표하는 곳은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유럽에는 수많은 클래식 작곡가 거장들이 있다. 미국은 지역별로 수 많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있지만 역시 다른 문화를 미국답게 승화하는 나라답게 20세기 미국에서는 클래식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이 나타나게 된다.

Rag Time (랙타임)

1970년대 영화 '스팅'을 아시나요? 이 영화를 본적은 없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OST는 정말 많이 들어봤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피아노 명곡집'이라는 책을 보셨을 것이다. 그 명곡집에 들어 있던 곡, 바로 '엔터테이너(Entertainer)'. 영화 '스팅'의 OST 이다.

'엔터테이너'의 작곡자 스콧 조플린(Scott Joplin, 1868년 11월24일-1917년 4월 1일)은 미국 텍사스주 흑인 노동자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랙타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다.

랙타임 작곡가. 굉장히 생소하다.

랙(Rag)이란 단어는 '일그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타임(Time)이라는 뜻은 음악에서 한 마디를 뜻한다. 고로 '랙타임'이라는 것은 '일그러진 마디'라는 뜻이다. 마디가 '일그러져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주를 하라는 뜻일까? 연주는 가능한 것인가?

'랙타임'이라는 것은 리듬을 말하는 것으로 왼손은 정박으로 연주를 하고, 오른손은 당김음이나 부점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남부의 흑인 사회에서 크게 유행한 춤과 춤곡을 흔히 줄여서 래그(rag)라고도 한다.

랙타임 작곡가 조플린의 연주 방식은 미국 대중음악과 재즈에 큰 영향을 주었고, 피아니스트나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작품과 즉흥 연주에도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조플린이 작곡한 '엔터테이너'이외에도 '단풍잎 래그(Maple Leaf Rag)', '랙타임 댄스(Ragtime Dance)'가 유명하다. 흥이 필요하시다면 꼭 찾아 들으시길 권해드린다.

재즈와 클래식의 결합

헐리우드 영화, 팝음악, 뮤지컬 등 모든 대중문화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전 세계의 대중 문화를 선도 하고 있는 미국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유럽에 비하면 변방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문화예술은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브루클린 빈민촌에서 태어난 거쉰(1898년 9월 26일 ~ 1937년 7월 11일)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은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가 된다.

재즈와 클래식음악의 결합, '랩소디 인 블루'라는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된 거쉰은 26세 1924년 미국을 대표하는 스타 작곡가가 되었다. 미국적인 음악을 가장 잘 작곡하는 거장이었지만, 언제나 정통 클래식 음악에 목말라 있었다.

거쉰은 자신의 실력이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그 당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 작곡가인 라벨의 제자가 되길 바랐다. 공연차 미국에 왔을 때 거쉰은 자신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라벨에게 요청한다. 라벨은 "당신은 저절로 샘처럼 솟아나는 듯한 멜로디를 가진 사람이다. 일류의 거쉰이 되는 편이 이류 라벨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하고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던 거쉰이었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끝없이 배우려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12음 기법을 창시한 20세기 작곡가 쇤베르크는 "거쉰에게 있어 음악은 그가 숨쉬는 공간이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물이며 갈증을 풀어주는 음료수였다. 그는 음악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결국 그가 이룩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커다란 공헌이었다"라며 거쉰의 음악을 정의했다.

재즈와 클래식음악을 결합시킨 독자적인 미국풍 음악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거쉰의 음악은 그 당시 미국의 물질문명과 땔 수 없는 관계였다. 거쉰의 음악이해를 위해 뛰어난 해설서를 쓴 '클레쉬'는 '랩소디 인 블루'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며 줄을 타고 올라가는 서커스의 줄타기처럼, 흐느끼며 상승하는 클라리넷의 첫 음에서 이미 이 곡은 사람들이 붐비는 싸구려 아파트며 자동자가 마구 혼잡하게 뒤엉킨 길거리, 이스트 사이드의 조그만 유태 교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성가가 들리는 듯한 음악이다…" 시대와 대중들의 삶을 반영한 음악이 바로 거쉰의 음악이였다.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반영한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즐겁다면, 그것이 바로 대중음악이고 클래식이다.

글_ 김용진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 5 화

누가 선택될 것인가 누가?

뮤지컬 캣츠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내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내 자식이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세상에서 귀히 쓰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등급이나 차별, 계급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등급 나누고 무리 속에서 차별과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보다 자신이 누구 자식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혹은 누가 내 뒤를 봐 주는가 등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도구이자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는 인간 그 자체의 존귀함이 우선이고 각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사랑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엄마가 누구이고 뒤를 봐주는 기업이 어디이고 이런 가치가 중요하지만 분명 그 가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잘못된 가치를 따라 살다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경우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뮤지컬들이 중요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오는 갈등, 위기, 절정을 통해 결말에 이르는 인생을 무대 위에서 긴장감 있게 그려냅니다. 물론 뮤지컬 뿐 아니라 인간의 인생을 배경으로 한 장르의 예술 형태는 대부분 이런 문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연의, 단역의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두 시간 반이라는 시간동안에 극을 만들어 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특별하고도 주된 인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나머지들이 조연과 단역,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주역의 배경 인생이 됩니다. 간혹 드라마 속 인생과 실제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양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조, 단역으로 만들고 자신이 주역인양 행세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거나 그저 뉴스에서 보는 가십거리 하나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연이거나 예쁘고 특별한 여주인공이 있는 것도 아닌, 아니 이렇고 저렇고 간에 사람이 안 나오는, 다양하고 특별한 고양이들이 나와 그저 자신들의 모습을 선보이며 모두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장기를 뽐내는 작품, 바로 뮤지컬 캣츠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고양이가 나오는 세계4대 뮤지컬

1981년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시작된 뮤지컬 캣츠는 웨스트엔드 21년, 브로드웨이 18년간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00개 도시에서 7300만 명이 관람했고 1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해지는데 최근 리뉴얼된 뮤지컬 캣츠는 런던을 거쳐 브로드웨이를 휩쓸며 다시 전성기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현재도 모든 기록을 경신하며 뮤지컬계의 불후의 명작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설입니다.

'캣츠는 몰라도 메모리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캣츠의 수록곡 메모리(Memory)는 바브라 스트라이브 샌드 등 유명 가수와 배우들로 180여번 레코딩 된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음악 교과서에 꼭 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뮤지컬을 대표하는 뮤지컬 음악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어린 시절 즐겨 읽던 T.S 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The Old Possum 's Book of Practical Cats - 1939년)'를 소재로 음악을 만들어 1980년에 공연에 올리자 엘리엇의 부인 발레리 엘리엇이 남편의 미공개 시 중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라는 시를 웨버에게 보내 주었고 웨버는 그 시에서 영감을 얻어 뮤지컬로 제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롤드 프린스와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해롤드 프린스는 고양이들을 빅토리아 시대의 다양한 계급의 유형적 인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사회적이고 풍자적인 작품으로 방향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웨버는 이 작품을 사회적인 작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해롤드 프린스와 작업이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고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와 연출가 트레버 넌을 만나 초연 제작진용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캣츠의 전설은 가고자 한 방향에서 벗어난 고난과 고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연 공연장 뉴런던 씨어터는 10년간 흥행작을 못 올린 뮤지컬의 무덤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공연장이었고 고양이 타이즈를 입고 무대를 뛰어다니는 뮤지컬을 젊은 작곡가와 연출가가 만든다는 소식에 공연 전까지 투자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었으며 심지어 주연배우 주디덴치는 리허설 도중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일레인 페이지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올라가고 평단은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Now And Forever

현재 진행형 전설

공연이 올라가고 관객들은 무대 위를 종횡무진 달리는 고양이들을 만나며 웃고 울고 박수치며 환호하다가 미친 듯 박수치며 공연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고양이의 키 높이로 바라 본 사이즈로 제작된 무대와 1톤이 넘는 야크 털로 만든 존 내피어의 의상과 무대, 그리고 강철 체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 쓰러질 지도 모를 만큼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존 질리언의 안무 등이 트레버 넌의 가사와 연출과 만나 환상의 무대를 구성해 냈습니다. 그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각 고양이들의 개성을 잘 살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 그 음악은 이 공연이 전설이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1982년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이 시작 될 때에는 사전 예매로 620만 달러 (약 70억)의 매출을 올리고 시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런던에서 21년, 뉴욕에서 18년 공연 후 막을 내리고 리뉴얼해서 새로워진 캣츠는 2014년 런던에서 시작해 2016년 브로드웨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전설은 Now and Forever,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

그저 고양이의 이야기. 이름을 불러 주세요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 한사람의 인생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따라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인공은... 누구지? 라는 되물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고양이들입니다. 심지어 평론에는 '사람 흉내를 내는 고양이들이 출연'이라고 할 만큼 인간이 표현 할 수 있는 고양이에 대한 표현법을 모두 도입한 공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습 과정도 특별하고 진지하게 고양이의 움직임과 특징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고양이처럼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꼬리 증정식이라 명명된 특별한 훈련을 통해 완성된 고양이들이 자신의 꼬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훈련하고 타인으로부터 꼬리를 증정 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훈련된 고양이들은 분장을 하는 순간 공연단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근처에 나타나면 일체 사람의 말을 안 하는 규칙을 지켜가며 자신들을 고양이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고양이들은 '누군가의 조연이나 단역'이 아닌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모두 고양이들의 천국인 헤비사이드레이어로 올라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며 고양이들의 축제인 젤리클 볼에서 자신이 선택될 고양이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듯 고양이들은 축제를 즐기며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고양이가 있으니 바로 그리자벨라입니다.

그리자벨라는 아름다웠던 한때가 있던, 하지만 지금은 누추하고 별 볼일 없어져 다른 고양이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고양이로 외롭고 잊혀 진 고양이입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칠 무렵 올드 듀터러노미는 마침내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이 될 뛰어나고 훌륭한 고양이가 누구인지 궁금해 할 그 무렵 그리자벨라는 자신의 기억 속 자신을 그리워하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올드 듀터러노미는 많은 고양이들 속에서 버려지고 누추하고 잊혀 진 고양이 그리자벨라에게 기억 속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많은 고양이들의 축복 속에 그리자벨라는 헤비사이드레이어로 떠나고 고양이들은 사람들 (관객들)에게 좀 더 정중하게 자신들을 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야기 하며 막을 내립니다. 즉 개개인의 모두가 소중하니 각자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로 고양이의 입을 빌어 사람들 세상을 노래합니다.

이렇듯 뮤지컬 캣츠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개개인의 이름이 너무도 소중한 특별한 고양이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조연이나 단역이 아닌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의 삶을 사는 행복한 배우이자 배역입니다. 그렇기에 뮤지컬 캣츠는 관람 내내 갈등이 없습니다. 무언가 정의를 판단하거나 선과 악을 나누거나 작품에 대해 분석을 하거나 주제를 결정지으려 노력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한 마리 한 마리)의 삶을 지켜 봐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보다 못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누구처럼 특별한 수저를 들고 태어나지 못해 속상하십니까?
자신 그 자체에 자신이 없어 자격증으로, 학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선택받아야 할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름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글_ 오세준

9 2017 September

공연일정

대 대공연장 소 소공연장 야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 울산시립무용단 "울울창창" (20:00)	2 대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5:00) 소 창작컨텐츠 육성사업 "창작가무악극 태화루 in Love" (17:00)
3 대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5:00)	4 대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5:00)	5 대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5:00) 소 피아노 듀오 (19:00)	6 대 2017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15:00) 소 제9회 클래식 음악제 (19:30) 야 뒤란 (19:30)	7 소 제9회 클래식 음악제 (19:30)	8 대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 시리즈 4" (20:00)	9 대 제4회 울산 시민 대화합 음악회 (19:00) 소 조르디사발 The Celtic Viol (19:00)
10 대 울산 로얄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17:00)	11	12 대 구립교향악단 제57회 정기연주회 (19:30) 소 2017 soundwell – 그대에게 (19:30)	13 소 류경자의 춤 '아름다운 동행' (19:30) 야 뒤란 (19:30)	14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2017 우리소리예술단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15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울산광역시 교사국악관현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19:00)	16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제11회 이선숙 판소리 연구소 정기공연 "태화강 소리" (19:00)
17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제9회 울산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19:00)	18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19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창작 울산 가곡의 밤 (19:30)	20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야 뒤란 (19:30)	21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울산시립교향악단 "클래식할 FUN 번 3" (20:00)	22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제7회 울산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19:30)	23 대 제26회 전국무용제 (19:00) 소 제20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야 제20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24 소 제20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	25	26 소 울산시립합창단 "나는 테너다" (20:00)	27 야 뒤란 (19:30)	28 대 광역시 승격기념 시민의날 기념식 (10:00) 소 타악 퍼포먼스 새암 제4회 정기공연 <JAZZ & 樂2> (19:30)	29 대 2017년 해오름동맹 국악교류공연 (19:30)	30 소 제1회 The Brass 창단 연주회 (19:3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2017 September

전시일정

❶제1전시장 ❷제2전시장 ❸제3전시장 ❹제4전시장 갤 갤러리쉼 야 야외전시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❶❷❸❹ 제16회 한마음미술대전 ~9.6.(수)	2
3	4	5	6	7	8 ❷ 이형록 도자 개인전 ~9.13.(수) ❸ 제10회 먹물향기전 ~9.13.(수) ❹ 제15회 울산수채화협회 회원전 ~9.13.(수)	9
10	11 ❶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성년울산 특별 기록전 ~9.30.(토)	12	13	14 ❷ 제9회 울산인물작가회 회원전 ~9.19.(화) ❸ 박하늬 개인전 ~9.19.(화) ❹ 울산대평생교육원 서양화작품전 ~9.19.(화)	15	16
17	18	19	20 ❷ 제5회 울산파스텔화전 ~9.25.(월) ❸ 제15회 원우회전 ~9.25.(월) ❹ 제25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9.25.(월)	21	22	23
24	25	26	27 ❷ 제11회 울산청년작가회 정기전 ~10.2.(월) ❸ 제9회 창작미술인협회전 ~10.2.(월) ❹ 제10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10.2.(월)	28	29	30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s 9월 공연가이드

창작컨텐츠 육성사업 "창작가무악극 태화루 in Love"

공연정보 9. 2.(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파래소국악실내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태화루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남녀가 임진왜란으로 태화루가 소실되어 인연이 이어지지못한 아픔을 다시 찾은 태화루와 함께 사랑을 마침내 이룬다는 내용의 창작가무악극.

피아노 듀오

공연정보 9. 5.(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피아노 듀오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들을 피아노 듀오 연주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연

제9회 클래식 음악제

공연정보 9. 6.(수) 9. 7.(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음악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지역아마추어 음악가의 오케스트라 협연 및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공연

제4회 울산 시민 대화합 음악회

공연정보 9. 9.(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실력있는 출연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회로 시민 화합과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7년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의 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새롭게 거듭날 울산을 축하하는 공연

울산 로얄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10.(일)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로얄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오케스트라 연주, 합창, 앙상블, 솔로로 구성된 공연

2017 soundwell – 그대에게

공연정보 9. 12.(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국악실내악단 소리샘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400년전 경상도 안동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원이 아버지와 원이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국악으로 전하는 공연

Performances 9월 공연가이드

구립교향악단 제57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12.(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를 위한 클래식 및 오페라 공연

류경자의 춤 '아름다운 동행'

공연정보 9. 13.(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류경자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우리나라 고유의 춤사위와 장단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공연

제26회 전국무용제

공연정보 9. 14.(목) ~ 9. 23. (10일간)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2017 우리소리예술단 제1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14.(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우리소리예술단
입 장 료 무료

울산광역시 교사국악관현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15.(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교사국악관현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현대 감각에 잘 맞는 창작 국악관현악곡과 창작 국악동요를 연주하는 공연

제11회 이선숙 판소리 연구소 정기공연 "태화강 소리"

공연정보 9. 16.(토)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이선숙판소리연구소
입 장 료 A석: 10,000원

제9회 울산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17.(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타악기앙상블
입 장 료 무료

창작 울산 가곡의 밤

공연정보 9. 19.(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작곡가협회
입 장 료 무료

제7회 울산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9. 2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심포닉밴드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교향곡, 기악곡 등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 공연

제20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공연정보 9. 23.(토) 10: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제20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공연정보 9. 23.(토)
9. 24.(일) 1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울산광역시 후원
입 장 료 무료

광역시 승격기념 시민의날 기념식

공연정보 9. 28.(목) 10: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입 장 료 무료

타악 퍼포먼스 새암 제4회 정기공연 〈 JAZZ & 樂2 〉

공연정보 9. 28.(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타악퍼포먼스 새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jazz의 자유분방함과 樂의 정적인 전통음악이 만나 틀에 박혀있는 음악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즐겁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동, 서양의 퓨전음악과 타악을 중심에 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

2017년 해오름동맹 국악교류공연

공연정보 9. 29.(금)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포항, 경주 세도시가 관객들과 소통하는 신라의 악가무 공연

제1회 The Brass 창단 연주회

공연정보 9. 30.(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The Brass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등 연주

Exhibitions 9월 전시가이드

제16회 한마음미술대전

전시기간 9. 1. ~ 9. 6.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남구문화원
전시내용 제16회 전국공모 울산남구 한마음미술대전 입상작 및 초대작가 작품 전시 250여점

이형록 도자 개인전

전시기간 9. 8. ~ 9. 13.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이형록
전시내용 물레성형으로 완성 된 사물이 하나의 사물에서 파생 되 다른 사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래의 기억을 가진 채 환생해 가는 도자기를 표현 공예 40여점 전시

제10회 먹물향기전

전시기간 9. 8. ~ 9. 13.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서예분과
전시내용 전통의 서예와 창작서예 작품 110점 전시

제15회 울산수채화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9. 8. ~ 9. 13.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수채화협회
전시내용 빛에 물들다 라는 주제로 빛과 어우러진 색채의 향연을 울산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전시 미술 50여점 전시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성년울산 특별 기록전

전시기간 9. 11. ~ 9. 30. (20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총무과
전시내용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광역시 승격과정 및 울산의 발전상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애향심 고취 및 홍보의 장을 마련,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전시

제9회 울산인물작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9. 14. ~ 9. 19.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인물작가회
전시내용 새롭고 다양한 표현방법에 의한 창작의 작품을 울산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미술 20여점 전시

박하늬 개인전

전시기간 9. 14. ~ 9. 19.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박하늬
전시내용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개들을 의인화 한 작품 50여점 전시

울산대평생교육원 서양화작품전

전시기간 9. 14. ~ 9. 19.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평생교육원
전시내용 평생교육원 서양화과정 교육생 작품 60여점 전시

제5회 울산파스텔화전

전시기간 9. 20. ~ 9. 25.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파스텔화
전시내용 울산에서 활동하는 파스텔화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50여점 전시

제15회 원우회전

전시기간 9. 20. ~ 9. 25.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원우회
전시내용 울산미술학원장들의 모임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 및 성장기운을 북돋아 주고자 표현 한 그림 50여점 전시

제25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전시기간 9. 20. ~ 9. 25.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제25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에 입상 된 120여점 전시

제11회 울산청년작가회 정기전

전시기간 9. 27. ~ 10. 2.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청년작가회
전시내용 울산의 젊은(40세이하)작가들의 작품으로 형식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조각 및 그림 10여점 전시

제9회 창작미술인협회전

전시기간 9. 27. ~ 10. 2.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창작미술인협회
전시내용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문인화, 공예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사실화와 구상, 비구상 현대회화 작품 40여점 전시

제10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9. 27. ~ 10. 2.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포토라이프클럽
전시내용 울산의 여러 축제 현장에서 울산 시민들의 정서와 감정의 표정들을 담은 사진 50여점 전시

중구문화의전당

2017중구문화의전당 해설이 있는 교향곡 시리즈3

- 일　　시 : 9. 1.(금) 19:30
- 장　　소 : 함월홀(2층)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나는 운명과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슈베르트와 그리그, 오네르게르의작품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정통 클레식의 감동을 선사

단원 김홍도 초청기획展 「風俗의旅程」

- 일　　시 : 9. 1.(금) ~ 9. 30.(화), 30일간
- 관 람 료 : 무 료
- 개　　요 : 단원 김홍도의 폭넓은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해피니스〉도 전시하여 현대적으로 해석된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만나보도록 구성

브런치콘서트 행복한아침
플루티스트 이인출연 「어느 가을날」

- 일　　시 : 9. 28(목)11:00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한국의 10대 플루티스트로 선정된 신진예술가의 공연

2017 중구문화의전당 「별의여인, 선덕」

- 일　　시 : 9. 30(토) 15:00, 19:30 2회공연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지혜의여왕(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당나라 태종에게서 받은 멸시를 지혜로움과사랑으로 극복하여 진정한 焚黃(분황)이 된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뮤지컬

북구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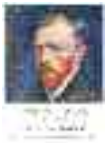
무료가족영화상영『쿠보와 전설의 악기』

- 일　　시 : 9.27.(수) 19: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료

북구청춘극장『늙은 자전거』

- 일　　시 : 9.13.(수) 14: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료

현대예술관



불멸의 화가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展

- 일　　시 : 7. 8.(토) ~ 10. 8.(일) 미술관(월요일 휴관)
- 관 람 료 : 성인 8,000원, 중·고등학생 이하 7,000원
- 개　　요 :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 속에서 그의 삶을 따라가보는 특별한 체험전시

데이브 코즈 내한공연

- 일　　시 : 9. 19.(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람 료 : 1층 55,000원, 2층 35,000원
- 개　　요 : '세계 3대 색소폰 연주자'로 불리는 색소포니스트 데이브 코즈의 내한 공연

탱고 파이어 내한공연

- 일　　시 : 10. 24.(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85,000원, A석 65,000원, B석 45,000원
- 개　　요 : 뜨거운 몸짓으로 전 세계를 열광 시킨 아르헨티나 오리지널 팀 '탱고 파이어'의 매혹적인 탱고 무대

가족뮤지컬 정글북

- 일　　시 : 11. 2.(목) ~ 4(토) 평일 10:30, 토 11:00, 14: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람 료 : 1층 35,000원, 2층 20,000원
- 개　　요 :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80분간 숨막히는 정글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할 명품 가족 뮤지컬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일　　시 : 11. 27.(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95,000원, A석 75,000원, B석 45,000원
- 개　　요 : 뛰어난 연출과 연주력으로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고품격 클래식 무대

문화송년 송승환의 난타

- 일　　시 : 12. 1.(금) ~ 12. 2.(토) 금 20:00, 토 15:00,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람 료 : 1층 35,000원, 2층 20,000원
- 개　　요 : 국내 공연 최초로 1,000만 명 돌파! 사물놀이 리듬 위에 주방의 사건을 코믹하게 그려낸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오디세이

- 일　　시 : 9. 23(토) 12:00 ~ 15:00 *제2회 영화제(9. 21 ~ 9. 25) 연계
- 관 람 료 : 무료
- 개　　요 : 올해로 8회를 맞는 영남알프스의 빼어난 자연풍광을 담은 산상음악제

기획 체험전_모래랑 빛이랑

- 일　　시 : 8. 29(화) ~ 9.17 (일), *9월4일, 11일 휴관
- 관 람 료 : 성인 5,000원, 어린이 10,000원(단체 5,000원)
- 개　　요 : 모래와 빛을 이용한 체험전. 샌드애니메이션과 라이트 드로잉을 통해 관람뿐만 아니라 놀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감성 놀이터.

9월 하우스콘서트_알렉시스 바예호스

- 일　　시 : 9.27(수) 20:00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칠레가 자랑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알렉시스 바예호스의 다양한 레파토리 음악 연주

김이란 초대전

- 일　　시 : 9.20(수)~10.14(일) 9:00~18:00 *매주 '월' 휴관
- 관 람 료 : 무료
- 개　　요 : 울주아트 신진작가 공모 당선작가 초대전으로 아줌마를 소재로한 개인, 가족과 주변인들의 일상을 풍속화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

울주시네마 무비나잇_비긴어게인

- 일　　시 : 9. 9(토) 19:00
- 관 람 료 : 전석 2,000원

협약점 현황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롯데호텔 울산

LOTTE HOTELS & RESORTS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메가박스(울산점)

MEGABOX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밀레(달동점)

MILLET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PAB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쉼 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시동 1층
문의 | 052-274-4393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모리샤브

MoriShabu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번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신라스테이

SHILLA STAY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가입 방법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 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 반 회 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 족 회 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 체 회 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예매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새로워진 캣츠가 온다!

CATS

캣츠 내한공연

10.13.-10.15. 울산문화예술회관

예매 누리티켓,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문화예술회관 문의 1566-9621